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카디안 미국 밴크론 특별자산모투자신탁(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밴크론 및 하이일드 채권과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모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미국 달러화 표시 밴크론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하이일드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매입신청, 환매청구 및 환매대금지급, 기준 가격 산정 등이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므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86,853,412원

-미국밴크론특별자산모(미달러)[대출채권-재간접형] 173억 원

펀드유형

특별자산투자신탁

- 모투자신탁 편입비: 80% 이상
- 모투자신탁 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편입비: 60% 이상 (단, 미국 달러화 표시 외화대출채권 및 외화대출채권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5년 05월 26일)

- 클래스 A : 2015년 05월 26일

- 클래스 A-E : 2017년 10월 11일

- 클래스 C : 2015년 05월 26일

벤치마크

{SOFR(USD) 75% + 1.90%+ [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Master II Constrained Index(USD,T-1) PCA] 25%} 90% + SOFR(USD)

신탁업자

하나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8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9영업일

투자위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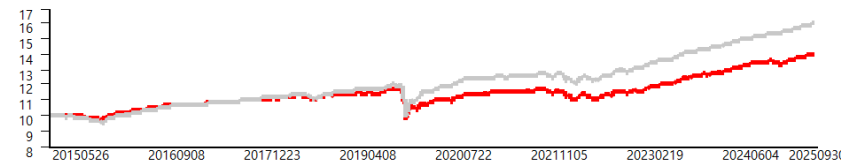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0.52%	1.72%	4.27%	6.35%	16.54%	28.19%	27.96%	40.25%
클래스 A	0.43%	1.46%	3.76%	5.32%	14.57%	24.99%	22.08%	23.89%
클래스 A-E	0.46%	1.55%	3.95%	5.71%	15.14%	26.02%	25.13%	22.59%
클래스 C	0.40%	1.37%	3.56%	4.91%	13.39%	23.05%	19.46%	19.31%
벤치마크	0.59%	1.90%	3.94%	6.96%	17.21%	31.43%	35.07%	60.05%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 해당 수익률은 미달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9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상위 보유 종목

(2025년 09월말, 모투자신탁 편입비중 기준)

종목명	비중(%)
Invesco Senior Loan ETF	24.0
SPDR Blackstone Senior Loan ETF	24.0
First Trust Senior Loan ETF	23.4
iShares iBoxx \$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14.0
iShares 0-5 Year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12.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104% (판매 0.7%)
- 클래스 A-E : 총 연 0.754% (판매 0.35%)
- 클래스 C : 총 연 1.404% (판매 1%)

(공통사항)

운용 0.35%, 신탁 0.04%, 사무관리0.014%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7%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35% 이내
- 클래스 C: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9월 미국뱅크론 시장은 S&P/LSTA 레버리지론 지수 기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미국채 중 장기채 금리는 하락하였고 수익률곡선은 소폭 평탄해졌습니다. 2년물 미국채 금리는 9월말 기준 전월 대비 1bp 상승한 3.60%로 10년물은 7bps하락, 30년물 금리는 19bps 하락하였습니다. 발행 규모는 회복세를 보였고 리프라이싱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인 First Brands 파산보호 신청을 접수하며 미국, 유럽 부도율이 증가, 레버리지론 부도율은 전월의 부도율보다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10년 장기 평균인 1.65%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전월 상승한 부실율(soft default)은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횟수가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이 전망함에 따라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되거나 소폭 하락이 레버리지 론으로의 자금 이동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부도율 증가세, 관세 관련 리스크의 지속으로 인한 비우량 신용물 스프레드 상승 위험은 레버리지론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위험회피 심리가 커져 갈 때에 레버리지 론 자산은 구조적으로 담보부 대출로서 무담보 회사채인 하이일드 채권보다 낮은 변동성을 보여왔습니다. 추후 하이일드/뱅크론의 부도율이 상승할 조짐이 보일 때에는 투자적격 자산 역시 동시적으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매크로 환경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뱅크론 시장의 부도율을 모니터링하며 펀드의 리스크를 줄일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